01	SAT	
02	SUN	
03	MON	
04	TUE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 마감
05	WED	정시 최초 합격자 등록 기간
06	THU	
07	FRI	
08	SAT	
09	SUN	
10	MON	
11	TUE	
12	WED	
13	THU	
14	FRI	
15	SAT	
16	SUN	
17	MON	정시 추가합격자 발표 마감
18	TUE	정시 추가합격자 등록 마감
19	WED	
20	THU	추가 모집 접수 및 합격자 발표
21	FRI	
22	FRI	
23	SUN	
24	MON	
25	TUE	
26	WED	
27	THU	
28	FRI	추가 모집 등록 마감

정시 추가 합격자 발표

추가 합격자 발표는 정시 등록이 끝난 다음날부터 바로 시작된다. 발표 방법과 일정은 대학별로 다르니 홈페이지와 정시 모집 요강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 충원되는 인원은 군별 지원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2019학년 가군과 나군으로 분할해 모집한 한양대 모집 단위별 충원율을 살펴보자. 가군에서 한양대를 지원하고 나군에서 연세대나 고려대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군에서 한양대에 합격해도 나군의 연세대나 고려대에 합격하면 빠져 나가니 가군에 있는 모집 단위의 충원율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2019학년 가군의 한양대 행정학과의 충원율은 238.5%였고 나군의 한양대 정책학과의 충원율은 5.0%였다.

정시 추가 합격자 등록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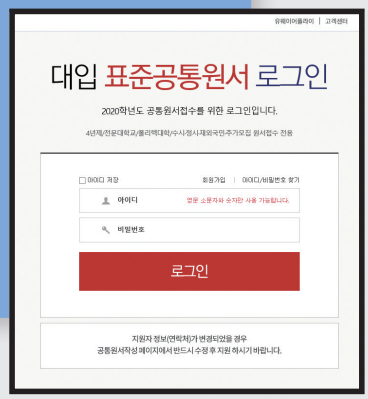
입학처 홈페이지에 발표된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면 그대로 낙방. 회차마다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대학도 있지만, 모든 대학이 그런 것은 아니다. 홈페이지에서 합격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수험생의 몫. 전화도 놓쳐서 합격의 기회를 잃어버리더라도 수험생의 책임이다. 정시 입학 원서에 적힌 모든 연락처에 3회 이상 연락이 닿지 않으면 기회가 그다음 대기자로 넘어갈 수 있다. 정시 합격자는 등록금과 입학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모두 납부해야 하니 충분한 금액을 마련해놓고 추가 합격을 기다릴 것.

2020 FEBRUARY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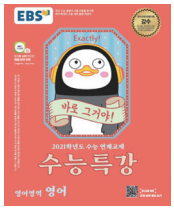
취재 손희승 리포터 sonti1970@naeil.com

추가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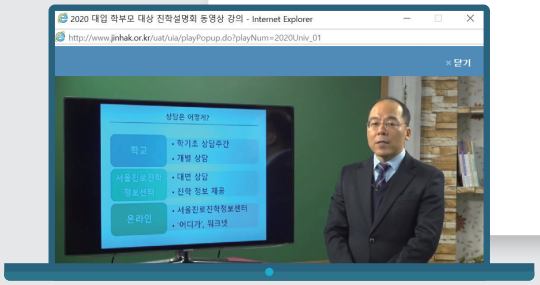
올해는 대학 입학 정원보다 대입 가능 자원이 적은, 즉 모집 정원보다 수험생 수가 부족한 첫해다. 대학들이 수시와 정시에서 신입생을 충분히 모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만 하더라도 전국 167개 대학이 7천400여 명 규모로 추가 모집을 실시했으며 정시 미등록 인원까지 나중에 추가했으니 실제 추가 모집 규모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의학 계열에서도 11명을 모집했으며, 서울 및 수도권 대학에서도 600여 명을 선발했다. 추가 모집 내용은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정시 모집과 마찬가지로 공통 원서를 작성하여 지원한다. 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와 진학사 원서 접수(www.jinhakapply.com)에서 지원하므로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모집 단위와 해당 인원도 이 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학년 EBS 연계 교재 출시



2021학년 수능을 대비한 EBS 연계 교재가 출시된다. 2월에 나오는 〈수능특강〉과 6월에 나오는 〈수능완성〉이 그것. 올해 〈수능특강〉의 표지 모델은 펭수. 〈수능특강〉은 3학년 1학기 수업에서 부교재로 사용되어 내신 문제 출제 비중도 높다. 특히 국어와 영어는 교재에 실린 지문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활용하여 지문을 그대로 내는 경우가 많다. 다만 연계 교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학습량이 매우 늘어난다. 내신보다 수능이 강한 학생들이 많은 고등학교일수록 시험 범위를 넓게 잡아 변별력을 높인다는 것을 알아둘 것. 국어와 영어만큼은 2월부터 미리 풀어보는 것이 유리하다.

서울시교육청 학부모 대상 진학설명회

2021학년 입시에 관한 정보는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제일 빠르다. 지난해부터 날짜와 장소를 정해놓고 대규모 설명회를 여는 것보다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올려 누구나 언제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해용 수석연구사는 "수시·정시·음악미술체육·전문대학·고3 진학 지도로 나눈 설명 동영상을 2월 말 서울진학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www.jinhak.or.kr)와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